

# 근대 도시 문화로서 창경원 야영

권영란\* · 배정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 I. 서론

일제는 조선의 경관을 훼손하고 변형하는 데 힘을 쏟았다. 기존의 전통 경관에 대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파괴하고, 치자(治者)에게 유리한 이미지를 덧입힌 것이다. 1909년 개원한 창경원(昌慶苑)이 그 중 하나이다. 일제는 대중의 지식 계발과 즐거움이라는 명분으로 창경궁(昌慶宮)의 전각을 헐고, 그 자리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어 왕권과 왕실의 권위를 높이공원이라는 이미지로 파괴했다.

같은 시기 창경원에 벚나무가 대량으로 식수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대량으로 식수된 벚나무 또한 창경궁의 경관 변화에 큰 획을 그었다. 당시 경성부민들은 일제에 대한 반감과 함께 벚나무 또한 증오했지만, 동시에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벚꽃의 화려함과 장엄함에 매료되었다. 창경원은 경성부민들에게 빠르게 벚꽃 명소로 인식되었고, 당시 대중매체들의 적극적인 선전과 함께 관앵(觀櫻)과 야앵(夜櫻)은 경성을 대표하는 '상춘문화(賞春文化)'로 자리 잡았다.

이 연구는 야앵 이전의 상춘 문화와 공간적으로 구별되는 도시에서 일어난 점에 주목한다. 근대화 이전 조선시대 상춘 행사의 장소는 정주(定住) 환경과 자연의 경계에 위치하는 '정주 환경의 한계선'에 위치했다(황기원, 2009: 143-146). 하지만 창경원 야앵은 근대성을 공간의 논리로 내세우는 '도시'에서 나타난 상춘 문화이며 '도시 문화'다. 이 연구는 당시 경성에서 일어난 변화들과 함께 살핌으로써 야앵의 특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야앵 문화가 식민 통치를 위한 여흥이라는 틀에서 나아가 새로운 야앵의 역할을 탐색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 연구는 야앵을 창경원 내부의 이벤트에서 도시와 관계하는 문화로 범위를 확장하여 창경원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II장에서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근대 도시에 대한 시각을 동원해 경성의 모습을 관찰해 볼 것이다. 벤야민의 관점을 기준으로 분류된 경성의 근대성은 당시 매체의 기록과 근대 도시 문학 등을 이용해 제시한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분석한 경성의 모습을 토대로 당시의 매체 기록들을 통해 야앵과 경성의 관계를 알아본다.

## II. 벤야민의 근대적 도시체험과 경성

벤야민의 미완의 저작 「파사젠베르크(Passagen-Werk)」는 19세기 대도시에서 읽을 수 있는 근대성의 근원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이다. 「파사젠베르크」 속의 벤야민은 19세기 도시에 만연했던 일상적인 것들을 수집하고, 그 속에서 근대성을 찾아 내려 했다. 이때 벤야민의 수집 기준이 되는 핵심은 '판타스마고리아(Phantasmagorie)'다. 사전적 의미로 '환영'을 의미하는 판타스마고리아를 벤야민은 "근대 도시와 상품세계, 그리고 근대적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 공간에 대한 지각 방식, 그리고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Benjamin, 1983a: 162)을 전체적으로 규정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판타스마고리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군중(주체), 스펙터클(매개), 체험(방식)의 범주로 살펴본다.

'군중'은 다양하고 모호한 사람들의 무리이다. 벤야민은 몰개성적이고 탈인격적인 군중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는 것, 그것들이 도시라는 공간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Benjamin, 1983a). 개인의 문제를 망각하고 동일한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환상을 가능하게 하는 군중의 탄생은 1930년대 경성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김기림은 군중의 모습을 "불빛에 물려드는 불나방"(조선중앙일보, 1933)으로 묘사한다. 당시 경성을 산책하는 것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하는 대중적인 행위였고, 사람들은 화려한 구경거리가 진열된 도시로 쏟아져 나왔다(조선일보, 1929). 그리고 거리로 나온 군중들은 다시 도시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벤야민이 주목한 19세기 파리에서는 어느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자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본에 의한 '스펙터클'이 만드는 판타스마고리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욕망을 욕망하는 군중들로 만든다(Benjamin, 1983a: 178)"고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경성의 모던보이와 모던걸은 자본의 스펙터클에 매료된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전차 좌석이 비어있는데도 앉지 않고 손잡이를 잡아 손목시계를 자랑하는 여학생들(조선일보, 1928)과 값비싼 여우 목도리를 두르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던걸들(조선일보, 1931)에서 "유행이 지니는 무한한 복제 이미지(신명직, 2003: 67)"를 엿볼 수 있다.

근근대적 삶의 공간에서 대도시로 공간의 전환은 판타스마고리아적 공간을 지각하는 새로운 방식을 필요로 했다. 스펙터클 문화, 기술복제 예술, 그리고 대도시 경험은 엄청난 감각의 홍수로서 충격을 가하므로 사람들은 충격에 대한 방어기제로 '경험(Erfahrung)'을 몰아내고, '체험(Erlebnis)'을 전면에 세운다. 경험이 언어로 전승되는 인류의 집단적 지혜라면, 체험은 개인 지각의 영역이다(Benjamin, 1983b: 73). 경성에서 또한 지속적이고 응집적인 경험은 경성의 화려한 자극과 끊임이 쏟아져 나오는 군중 속에서 파괴되었다. "이 진열장 앞을 오기만 하면 이 유행군의 무서운 유혹에 황홀하여 걸음걸이를 잊고 정신이 몽롱하며, 다 각각 자기의 유행 세계를 설계하려 든다"(여성, 1937)는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일회적이고 찰나적인 도시의 체험들은 각각의 개인들에게 의미화되지 못한 채 희미해진다.

### III. 창경원 야앵의 판타스마고리아

1924년 3월 11일의 동아일보 기사는 창경원 야앵(夜櫻)의 시작을 알린다(동아일보, 1924). 당시 매체는 매년 창경원 벚꽃의 개화 시기와 관람객 수를 예측하거나, 설비 확충 및 이벤트를 선전함으로써 사람들의 호기심을 부추겼다(동아일보, 1925, 1928; 조선일보, 1925, 1932, 1934). 또한 봄이 오면 창경원에서 벚꽃을 즐기는 것이 도시민의 당연한 여가인 것처럼 욕망을 주입했다(동광, 1927; 별건곤 1934). 통계에 따르면 1920년대 경성의 인구는 30만 명이었는데, 창경원 개원 시에는 1만 5천 명이었던 방문객이 야앵이 시작된 1924년에는 41만 명, 1940년에는 100만 명이 찾은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오창영, 1993: 53).

야앵을 즐기기 위해 몰린 군중의 수만큼 중요한 것은 입장료다. 당시 운동회의 경우, 계급과 성차에 따라 관람석 배정이 달라졌고, 영화관도 남촌과 북촌의 위치에 따라 관람객의 민족적·계층적 차이가 존재할 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좌석이 구분되었다(김현숙, 2008: 151). 하지만 창경원의 입장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상춘객들은 요금을 지불하고 창경원을 들어서는 순간 인종, 지역, 나이, 빈부, 계급, 성별과 같은 개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진정한 군중이 된다.

이처럼 야앵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단연 화려한 스펙터클 때문이다. 19세기 말 경성은 외국인의 눈에 기이하게 보일 정도로 "저녁이 되면 완전한 정적"(Bishop, 1994: 62)을 이루었던 도시였음을 미루어 볼 때, 창경원의 전등 장식은 구경거리를 자아내기 충분했다. 또 다른 스펙터클은 연예장의 무대다. 야앵 기간의 식물원 앞 넓은 광장에 설치된 연무장에서는 연예인들의 공연이 벌어졌고, 아악대가 흥을 돋우었으며, 폐장된 야간 동물원 풀밭에서는 활동사진이 상영되었다(동아일보, 1935). 구경꾼들은 춘당지 앞 잔디에 설치된 공연장 바닥에 앉아서 레뷰걸의 중

아리 곡선에 황홀해 하고(동아일보, 1935), 흔한 요술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동아일보, 1936). 군중들의 진중한 몰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람성은 연예장의 무대뿐 아니라, 벚꽃놀이 전체의 관람 양태였다(김현숙, 2008: 153). 화려하고 획일화된 일회성 행사가 만연해지면서 야앵은 20세기 초 표피적이고 찰나적인 경성의 문화를 대표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군중, 구경거리, 체험은 야앵의 전면에 등장해 판타스마고리아를 형성한다. 야앵은 경성의 봄을 대표하는 계절적 상징이자, 경성사람들에게 개화 소식을 알려주는 매체이자, 판타스마고리아에 지배되는 도시문화로서 근대적 도시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 IV. 결론

이 연구는 창경원 야앵이 이전의 상춘 문화와 공간적으로 구별되는 도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발터 벤야민의 근대 도시에 대한 시각을 바탕으로 파악한 경성의 판타스마고리아 현상은 야앵의 판타스마고리아의 양상과 다르지 않았다. 야앵은 근대화의 모습이 일상에 만연한 1930년대 경성의 모습에 시기적으로 앞서 시작되었다. 근대적 주체들에게 야앵은 근대의 태동을 맞이하는 도시와 이전부터 살아오던 삶의 공간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게 해 준, '근대에 대한 학습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야앵을 도시 문화로 정의함에 있어서 상춘 공간의 물리적 이동이라는 한정적인 의미만으로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경성이라는 도시적 맥락에서 도시 문화에 대한 논의의 폭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현숙(2008) 창경원 밤 벚꽃놀이와 夜櫻.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9: 139-160.
2. 동광(東光) 1927년 8월 5일 제16호.
3. 동아일보 1924년 3월 11일; 1925년 4월 25일; 1928년 4월 23일; 1935년 4월 9일; 1935년 4월 12일; 1936년 4월 29일.
4. 별건곤(別乾坤) 1934년 4월 제72호.
5. 신명직(2003) 모던보이 경성을 거닐다. 서울: 현실문화연구.
6. 여성(女性) 1937년 제11호.
7. 오창영(1993) 한국동식물원 80년사: 창경원 편. 서울: 서울특별시.
8. 조선일보(朝鮮日報) 1925년 4월 5일; 1928년 2월 5일; 1929년 8월 25일; 1931년 11월 24일; 1932년 4월 25일; 1934년 4월 19일.
9.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 1933년 1월 1일.
10. 황기원(2009) 한국 행락문화의 변천과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11. Benjamin, Walter(1983a) Über einige Motive bei Baudelaire. 김영옥 황현산 역(2005), 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브에 관해서. 발터벤야민선집 4. 서울: 도서출판 길.
12. Benjamin, Walter(1983b) Das Passagenwerk. Suhrkamp. 조형준 역(2005) 아케이드 프로젝트. 서울: 새물결.
13. Isabella Bird Bishop(1994)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이인화 옮김. 서울: 살림. p.62.